

■ 2025년도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사업 추가공모 심의 총평

- 사업명 : 2025년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 추가공모
- 회의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14:00~17:00
- 회의장소 : 서울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보라, 김성민, 김신아, 김희순, 박용재, 염혜원

2025년 문예진흥기금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해외협력기관을 통해 한국 예술가의 창제작 및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추가공모는 예술위가 새롭게 파트너십을 맺은 아시아 권역 3개 기관, 기존 유럽 권역 1개 기관의 참여 예술가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4개 기관 모두 예술위에서는 후보군을 선정하였고, 최종 선정 인원은 해외협력기관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심의기준은 사업수행 역량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40%,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기대효과 20%이었으며,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전수 검토 후 종합토론을 통해 후보군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문학 분야의 일본 교토작가레지던시의 경우, 특히 해외작가와의 교류 및 창작 계획의 구체성에 초점을 맞춰 심의하였습니다. 일본 혹은 교토지역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학적·교류적 수용계획이 아닌, 분명한 주제에 따른 특징·장소·공간·인물·장르 등 창작의 구체성이 있는지, 향후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등을 중점으로 살폈습니다.

일본 K-BOOK진흥회는 지원자격이 문인(시)이었기에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고, 향후 일본 출판계와의 협력 방법 등을 논의하여 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무용 분야의 인도네시아 코뮤니타스 살리하라는 주최 측에서 제시한 레지던시 프로그램(교육, 공연 관람, 리서치 등)에 참여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교류-예술적 수용을 통한 창작활동의 접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신청자의 계획서에 초점을 맞춰 심의하였습니다.

영국 에든버러축제 모멘텀 프로그램은 단순 협력 수준의 참가보다 타 참가자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교류 협력의 기회를 갖고, 기획자의 국제적, 콘텐츠 제작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소유·제작했거나 제작 계획인 콘텐츠의 페스티벌 및 마켓 진입을 위한 구체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들의 국제적 창작 역량을 높이고 국제교류의 외연과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관련 예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